

‘벚꽃대선’ 현실화 ... 호남 민심이 대한민국 바꾼다

촛불 이끈 시대정신의 원동력... 설연휴 민심 흐름 주목

민주 경선·제3지대...야권 대권구도 ‘태풍의 눈’ 될 듯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호남 민심의 흐름이 주목되고 있다.

국정 농단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여당이 분열하는 등 여권이 몰락,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권의 심장적인 호남 민심의 흐름이 대선 판도를 좌우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위기 국면마다 강렬하게 나타났던 호남 민심의 역동성은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과거 기독교 체제를 청산하고 정권 교체를 통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호남 민심은 정권 교체를 위해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결집력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예산, 정책, 인사 등 각 분야에서 호남 소외와 차별이 이어진데다 촛불로 나타난 공정 사회라는 시대정신 실현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남 민심은 과거와는 다르게 빠른 결집 양상보다는 신중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권이 다당제로 재편되고 탄핵 정국으로 대선 구도가 복잡하게 얽힌 것도 있지만 시대정신에 충실하면서도 호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함께 추구하며 쉽게 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호남 민심은 국민의당 바람의 진원지 역할을 하며 정치권의 변화를 주도했다. 호남의 맹주를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교체한 것은 물론 16년

만의 여소야대, 20년만의 원내 3당 체제는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이러한 호남 민심은 야권의 대권 구도에 ‘태풍의 눈’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용한 가운데 결정적 순간에 폭발, 거대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야권의 대선 판도는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가고는 있지만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호남 민심 저변에 아직 ‘비문’(비 문재인) 정서가 남아있어 민주당의 호남지역 경선에서 과거 ‘노풍’(노무현 바람)과 같은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호남 민심은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로 주시하고 있다. 제3지대에서 시대가 공감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후보가 호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면 야권의 대선 지형은 다시 재편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호남 민심은 대선 과정에서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하는 야권의 공동정부나 연립정부 구성에 동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호남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공동 정부에 참여하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데다 새로운 시대의 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여권만 된다면 호남 민심의 폭발을 이룰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지권 관계자는 “결국 호남 민심의 향배가 야권을 넘어 전체 대선 판을 흔들 것”이라며 “그동안 광명세를 보였던 호남 민심이 설 연휴 기간을 거치면서 점차 구체적 흐름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복 많이 받으세요” 희망의 새해를 맞는 민족의 명절인 설(28)이 성큼 다가왔다. 25일 광주시 북구 중흥어린이집에서 화사하고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세배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탄핵심판 3월 13일까지 결론... ‘4말 5초’ 대선

박한철 현재 소장 일정 밝혀

대통령측 증인 10명만 추가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박 소장의 발언은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현재 측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

힌 것이라 주목된다. 박 소장은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현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재는 신속한 결정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10명만을 추가로 받아들였다.

이 일정을 따라 현재가 심판에 대한 결

정을 내릴 경우 차기 대선 등의 일정도 조정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권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4월 말에서 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특히 인용 결정이 2월 말 특검 활동기간 종료 전에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한편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는 25일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한 달 만에 출석했다. 특히 최씨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항의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연합뉴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세요



27~30일자
신문 쉽다

설 특집 28면 발행

‘선택 2017’ 호남과 대선 ▶1~7면
‘한글 늦깎이’ 할머니의 설 편지 ▶8면
설 연휴 100배 즐기기 ▶11~19면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고향서 2박3일’ 3115만명 민족 대이동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28일)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대이동이 시작됐다.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기 전부터 광주·전남 주요 도로와 버스터미널, 기차역, 공항 등에는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27일~30일) 고향을 찾는 사람이 3115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특히 설 당일인 28일에는 최대 796만명이 귀성길에 오를 것으

로 전망된다”고 25일 밝혔다.

연휴 기간 귀성은 설 하루 전인 27일 오전, 귀성은 설 당일인 28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광주 5시간50분 ▲서울→목포 6시간40분, 귀경은 ▲광주→서울 5시간5분 ▲목포→서울 6시간5분으로 전망된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 31.6%가량이 2박3일간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설연휴 날씨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맑은뒤 흐림	비온뒤 맑	흐린뒤 맑음	맑은뒤 비	구름많음	

생명의 땅 전남
Full of Life, Jeonnam



에너지수도 전라남도

에너지 대한민국의 인재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미래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중심
청정 신재생에너지의 메카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허브
여기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전라남도에서 시작됩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



에너지 신산업 육성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향한
전라남도 에너지산업육성계획

에너지 신산업 육성

-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 섬 50개 조성
- 첨단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
- 친환경 에너지타운 및 에너지시티 조성
- 스마트 에너지신기술 실증 및 연구사업 추진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 330만㎡ 규모의 '에너지기업 중심 산단' 조성
- 우수 연구/산업인력 양성
- 에너지밸리 R&D 특구 지정 추진
- 한전의 에너지신기술 실증연구 지원

신재생에너지사업 본격 추진

- 풍력·태양광발전 5GW설치로 에너지 30% 자립
- 서남해안 대규모 송전전력망 확충
- 부생가스 활용을 위한 여수-광양간 해저터널 구축
- 해양에너지·조류발전 실험역 시험장 구축